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2호 【루계 제26086호】 주체107(2018)년 7월 31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30일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루안 마하라니 인력개발 및 문화담당조정상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은동지는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 세계적인 지도자》

국제사회계가 격찬

국제사회에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정치정세흐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높이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인터네트웨브싸이트에 《김정은령도자의 정력적인 외교활동으로 지역의 력학구도가 크게 변한 상태》, 《미국과의 수뇌회담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영상부각》 등으로 강조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니신 탁월한 외교지략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결론적으로 조선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는것이 미국의 목표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딴자니아신문 《더 가디언》에는 아프리카가 조선으로부터 배울수 있는 경험들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 우리 공화국이 국제무대에서 차지하고있는 전략적지위와 그 근본요인에 대하여 쓴 한 교수의 글이 실렸다. 교수는 글에서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철저히 실천한 조선의 경험은 아프리카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오늘의 전략적지위에 오른 과정을 지난해와 올해의 국적인 계기들과 결부하여 상세히 썼다. 그러면서 필자는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지만 세계정치구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론거를 들어가며 서술하였다. 교수는 《2018년 6월 12일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는 싱가포르의 회담장에서 악수를 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모두를 놀래웠다.》고 하면서 올해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인 정세흐름의 시작도, 그 전진과정에 세계가 목격한 경이적인 현실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의 현 분위기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신감에 의해 이룩되였고 대화의 원동력은 분명 그에 의해 마련되였다는것은 신문 《워싱톤 포스트》, 잡지 《네이슌》을 비롯한 미국언론들도 일치하게 내린 평가이다.

담대한 결단과 훌륭한 외교지략,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인을 매혹시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출위인상에 국제사회는 존경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로씨아정치 및 통일당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의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진행은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천리혜안의 통찰력을 지니신 현시대의 세계적인 지도자이시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피력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현명성에 매혹된 온 세계는 다시한번 잘 알게 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은 인류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랍지역위원회,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등 지역기구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훌륭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올해신년사와 최근 조선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통하여 그이이시야말로 비상한 용단을 지닌분이시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조선반도와 현 국제정치정세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자신만만하게 주도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나우로즈》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담력과 과학적통찰력, 비상한 정치적안목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 용의주도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로숙한 정치가이시다고 찬양하였다.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수호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그이의 존함은 세계정치, 외교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라고 격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매혹된 국제사회의 신뢰와 경탄의 목소리는 날로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이 형성에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천만군민이 자력자강의 노래, 만리마의 기세드높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력사에 승리의 7.27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전승의 날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열화와 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낸 세계사적사변으로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진리를 력사에 뚜렷이 새겨주었습니다.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성새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가렬처절한 3년간의 전쟁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은 반제자주위업승리의 상징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전승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판을 대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조국의 정치중심 곳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훌륭히 세워주시여 영예로운 조국사수전에서 영용하게 싸우다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고귀한 위훈을 영원히 빛내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통일의 려명을 앞당겨오실 불같은 의지를 안으시고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세차례의 중국방문에 이어 조미수뇌회담의 력사적사변도 안아오시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주시였습니다.

민족의 분렬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실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와 투철한 자주적신념으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조미관계의 격동적인 전환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거대한 대외활동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쉬는듯 한 삼복철의 무더위에도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사랑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조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이 세계만방에 빛나고 조국땅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동포들모두가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금 새롭게 간직하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조국의 강대함을 가슴뿌듯이 느끼고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민족모두의 운명이시고 휘황한 미래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이 시각 재중조선공민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를 높이 받들어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켜주신 조중친선을 확대강화하는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헌신의 장정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7(2018)년 7월 27일 중국 심양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또 하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준공식 진행

수도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현대미를 자랑하며 멋들어지게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개업하였다.

물우에 떠있는 배를 형상하여 특색있게 건설된 식당의 1층에는 철갑상어, 붕정어, 뱀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조개류, 자라들이 욕실거리는 실내못과 남시어 등이 꾸려져있다.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민족료리식사실, 초밥식사실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과 수산물가공품들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편리하게 갖추어진 2층과 3층에서는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높은 수산물료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게 된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선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 식당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록군대장 김수길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식당의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설계형성안들도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으며 건설력량편성으로부터 자재,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닌 인민군군인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그날부터 긴장한 건설전투를 벌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말하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의 준공은 당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경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군장병들이 혁명강군의 비상한 창조기풍으로 이 땅우에 고귀한 인민의 재부들이 차넘치게 하며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식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봉사활동을 깐지고 섬세하게 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으로 명성을 떨치며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 이어 첫 봉사가 시작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 론

《봄향기》

봄향기!

온갖 꽃 다투어 피여나는 봄날의 화원이 눈에 어려온다.

인민의 기쁨 사시절 피여나는 이 땅우에 가득 차넘치는 행복의 봄향기, 그것은 무엇으로 영원하고 아름다운것인가.

그 대답이 걸음마다 가슴을 치는 이곳은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이다.

누구든지 이 봉창을 찾으시라.

그러면 내 나라의 영원한 봄향기의 참의미를 알게 될것이다.

드넓은 지구상에 오직 내 조국땅에만 넘치는 아름다운 《봄향기》,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리신 소중한 씨앗들이 우리 원수님 사랑의 해발아래 인민의 행복의 꽃으로 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의 류다른 향취이다. 이 세상 제일로 인민을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들의 한평생의 념원과 만복의 씨앗인 우리 당정책을 백옥같은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 행복의 화원을 펼쳐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 창조와 투쟁의 거세찬 열기이다.

* * *

신의주화장품공장, 나라의 국정도시에 자리잡은 크지 않은 공장이다.

인민들이 리용할 화장품을 생산하는 평범한 이 공장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노도치는 조국땅우에 뚜렷한 모습으로 솟구쳐오른것은 무엇때문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찾으며 일터에 넘치는 《봄향기》를 소중히 가슴에 안고 가는것은 진정 무엇때문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고귀한 밑천으로, 만년토대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리상과 꿈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마치 꽃말에 서있는듯싶다.

각양각색의 화장품들이 눈부시게 펼쳐진 여기는 지난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기만 하여도 흐뭇하다고, 떠나고싶지 않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제품견본실이다.

기초화장품, 남자용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 그 종류만도 미처 다 꼽을수 없다. 세수비누, 두명비누, 직물세척제, 가루비누와 같은 비누종류만도 히다하다. 각종 향수들이 있는가 하면 3.8절기념품, 결혼화장품, 어머니날기념품과 같이 첫눈에도 마음에 드는 화장품들이 이채롭게 진렬된 곳들도 있다. 우리 생활에 아름다움과 향기를 더해주는 화장품이 이처럼 다종다양하다는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하지만 더 가슴을 치는것이 있다. 이 눈부신 문명의 화원에 스민 뜨거운 사연이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천신의 길을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속에 살아온것은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친다.

우리 수령님의 조국, 우리 장군님의 나라!

우리 얼마나 노래처럼, 시처럼 더욱은 부름인가. 그 참뜻이 지방의 이 크지 않은 공장에도 력력히 어려있는것이다.

진정 얼마나 뜻깊은 력사인가. 우리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올해의 9월은 신의주화장품공장이 자기의 창립 69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계절이기도 하다. 모든것을 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해방후의 그 어려운 나날 나라의 중요공업과 함께 인민생활을 위한 화장품공업도 창설해주신 우리 수령님.

아시는가, 사람들이여. 《봄향기》, 유정한 이 부름도 그 어느 도안가나 창작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달아주신것이다.

그 나날의 추억은 또 얼마나 가슴젖는것인가.

우리 장군님 외국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첫걸음으로 찾으시였던 주체90(2001)년 1월도 있고 한해가 다 가는 때에 또다시 찾으신 그해의 12월도 있으며 비누직장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오시였던 주체97(2008)년 11월도 있다.

어찌면 우리 장군님 그렇듯 추운 날들에 공장을 찾고찾으시였던가. 이 땅에 내리는 찬눈비는 자신께서 다 맞으시고 사랑하는 인민에게는 행복의 봄날만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한생의 산 증견같아 그리도 가슴젖는 이 공장이다.

시련의 눈보라와 봄향기!

진정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멀고 험한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 마음속소원이 무엇이였는가를, 시련의 눈보라속에 꽃고사신 불같은 념원이 무엇이였는가를 온넋으로 새기는 우리의 마음은 뜨겁다.

봄은 태양의것이다. 사나운 겨울을 이겨낸 이 강산에 만발해가는 행복의 봄, 그것은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눈부신 사회주의화원의 진모이다.

태양의 빛발아래 영원한 인민의 봄,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만만하는 행복의 화원의 진의미이다.

《옮기시는 걸음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인민, 인민이였습니다.》라고 하며 공장에 새기신 우리 원수님의 뜻깊은 발자취를 더듬는 공장일군의 격정에 젖은 이 토로.

첫걸음부터 떠나시는 시각까지 애오라지 인민, 인민때문에 기뻐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두고 그리도 뜨거운 당부를 남기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현대화된 생산공정들을 보시며 그처럼 기뻐하신것도 눈앞에 어려오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때문이였고 새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며 그 제품을 자신께서도 써보겠다고 하신것도 바로 인민이 쓰게 될 제품이였기때문이다. 신의주화장품공장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봄향기》화장품상점을 평양에도 내오자고 하시며 미처 다 골라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화장품앞에서 밝게 웃는 인민의 모습이 어려와 그리도 흐뭇해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뜻깊은 글발을 배경으로 공장종업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며 인민의 복무자라는 자각을 안고 화장품공업의 발전을 계속 앞장에서 선도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신 자애로운 어버이,

조국과 혁명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노도의 기상을 안고 내달리는 격동의 시기에 뜻깊은 현지지도의 자욱을 여기 신의주화장품공장에로 이으시고 시대의 한복판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신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영상이 천만의 심장에 새겨주는 뜻은 참으로 크고 뜨겁다.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원수님의 제일 큰 기쁨, 제일 큰 만족은 무엇이였던가. 그리도 기뻐하시며 대해같은 사랑 안겨주신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 가득 차넘치신 뜨거운 진정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이렇게 훌륭한 화장품들을 보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10년만 우리곁에 더 계셨더라면 이 훌륭한 화장품들을 보시였을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정말 희한한 광경이라고 하시며 기뻐하시였을것입니다라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우에 꽃펴난 인민의 행복, 그 념원과 뜻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올린 충정과 의리의 전경화여서 그리도 대견해하시며 들떤마대로 력사가 오랜 령도업적단위가 다르다고,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우리 원수님,

여기에 서니 오늘 조국땅 방방곡곡에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눈물겨운 로고와 헌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숭고한 뜻이 후덥게 가슴을 친다.

찾으시는 곳마다 우리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부터 뜨겁게 되새기시며 천만 군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나라와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번영의 길이 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의 번영의 길, 이 땅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의 진보와 비약의 주로는 결코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이 세상 제일로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것이다.

보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긍지높은 실록이자 공장의 발전력사가 되고 비약의 도약대가 된 《봄향기》화장품생산자들의 일본새와 투쟁기풍을.

이 공장에는 류다른 제품진렬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지수를 찍어주신 공장제품들을 교시를 받은 당시의것으로부터 2018년현재수준의것까지 진렬한것이다.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하여왔는가를 한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이 화폭,

세수비누, 가루비누, 수지와 유리로 된 화장품용기들, 결혼화장품…

우리 수령님들께서 공장에 주신 과업을 세대와 년대를 이어 어떻게 굴함없이 관철해왔는가를 안아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두텁다.

그것이 곧 공장의 연혁이 되고 발전력사가 된것이다. 바로 그것이 공장의 년대와 력사를 이어주는 바통이 되고 피줄기가 된것이다.

생명선!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에서 이들이 지닌 신념이고 의지이다.

걸음걸음, 순간순간 당의 구상과 의도에 삶의 박동을 맞추고 투쟁의 보폭을 따라세우며 우리 당정책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비약의 열쇠를 틀어쥔 《봄향기》화장품생산자들, 바로 그런 신념을 지니였기에 설사 자기들에게 주신 과업이 아니라고 해도 화장품공업과 관련한 당정책은 100% 접수하고 관철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우리 원수님께서 이번에 공장을 돌아보시며 크게 치하하신 살결물만 보아도 그렇다. 이 제품은 몇해전 어느 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화장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집단이 분발하여 만든 새 제품이다.

비록 자기들에게 직접 주신 과업은 아니지만 정중히 접수하고 스스로 분발하여 높은 목표를 점령한 이들,

얼마나 대조되는 일본새인가. 당에서 중시하고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말공부만 하면서 목록에나 써넣고 문서장만 만지작거리는 사람들과 얼마나 하늘땅같은 차이를 가지는 일본새인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상승주로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2015년의 성과도 그렇다. 이해 2월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을 화장품공업발전의 분수령이 되게 하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이들은 그 간곡한 호소를 자기들의 심장에도 새겨놓았다.

우리도 이 땅의 화장품생산자들이 아닌가. 우리의 《봄향기》화장품도 2015년을 분수령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자. 이런 불같은 마음으로 분발하여 2015년을 《봄향기》화장품생산에서의 다발적이고 현발적인 성과로 빛내인 이들.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제품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킬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설계된 봄향기화장품전시장도 이해에 건설되였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인 화장품생산공정의 무균화도 이해에 실현하였다. 바로 이해에 이들은 화장품의 질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세울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박차를 가하여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생각해보시라. 수십개 나라의 무려 수천명 전문가들이 연구개발하여 많은 특허를 받았다는 제품보다 더 훌륭한 경지를 보여주어 세계를 놀래운 이들의 경이적인 창조성과, 그것을 어찌 충명한 조선사람의 두뇌의 산물이라고만 하겠는가. 바로 당정책관철에 대한 이들의 걸사의 투쟁기풍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창조의 열매, 투쟁의 열매인것이다.

이런 문제가 선다. 이 땅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리신 인민사랑의 씨앗들은 많다. 그런데 어떤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것을 소중히 싹틔우고 꽃피워 인민의 행복의 향기, 기쁨의 향기 강산에 넘치게 하는데 왜 어떤 단위는 그렇지 못한가. 고난과 시련앞에서도 굴함없이 우리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여 비약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 단위들과 난관앞에 겁을 먹고 뒤걸음치며 오분열도식, 소방대식으로 일하는 주인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단위와 일군들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부터 생기는것인가.

결코 조건문제, 경험문제, 경제력의 차이때문이 아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정책을 성실하고 순결하게 받들려는 량심과 의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에 꾸려진 가루비누생산공정은 볼수록 마음후덥다. 가루비누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주신 간곡한 유훈이다. 남들이 이미 한 방식으로 하면 원료문제를 쉽게 해결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성의 가루비누에는 사람의 몸에 유해로운 린성분이 포함된것으로 하여 세계는 오늘 무린가루비누생산에로 방향전환을 하고있기때문이다. 무린가루비누생산, 이들은 그 첨단목표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길에서 자기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았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반응로가 폭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최상의 경지에서 관철하기 위해 수년세월 순결한 량심을 바치고 보석같은 땀을 묻으며 억척같이 전진해온 이들,

인민들이 즐겨찾고 선호하는 《봄향기》화장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이런 고결한 충정과 의리가 낳은 명제품, 명상품들이다. 그 제품들에 차넘치는것은 바로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의리의 향기, 고결한 삶의 향기인것이다.

봄향기!

한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시대의 한복판에 진하게 풍기는 이 창조와 진보의 열풍이 안고있는 의미는 참으로 크고 뜨겁다.

그것은 천만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총궐기한 오늘 시대를 진감하는 창조의 열풍, 진보와 비약의 거세찬 숨결이다.

천만군민이여, 누구나 이들처럼 자기 일터, 자기 단위에 깃든 당의 령도업적을 백옥같은 량심과 의리를 바쳐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자.

시대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 인간들의 삶의 아름다움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긍지높은 삶은 어떤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복속에 빛나고 온 나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봄향기》화장품생산자들의 보람넘친 삶은 그 대답으로 된다.

무릇 의리있는 삶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결한 의리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인민의 행복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들의 위대한 한평생을 못 잊는 불같은 진정이다. 우리 수령님들의 교시들을 자자구구 새겨넣으신 수첩을 품에 지니시고 오늘도 인민위한 불없는 로고와 헌신의 길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열화같은 진정에 삶의 박동을 맞춰줄 아는 충정이고 량심이다.

온 나라가 또다시 격정의 열파로 설레인다. 삼복의 무더위보다 더 뜨겁게 강산을 진감하는 내 조국의 열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며 이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세계에 접한 인민의 격정이고 솟구치는 눈물이다.

인민의 행복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며 불리만 보아도 가슴치는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였던 우리 장군님, 오늘은 또 우리 원수님 조국과 인민위한 폭염속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거늘 묻노니, 이 땅의 인민이여,

우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을 량심과 의리로 받든다는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원수님의 진정의 동지, 의리의 동지가 된다는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 조국번영의 념원을 심장에 안고 피와 땀 다 바쳐 현실로 꽃피우는것이 아니겠는가.

누구나 그 진정으로 심장 불태우며 순간순간을 이어갈 때 그 삶은 열정에 끓고 약동과 생기에 넘치는 진함없는 삶으로 향기롭기게 된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세워진 류다른 검직체계가 주목된다. 현재 공장에는 100여명의 연구사들이 있다. 그중 절반은 검직연구사이다. 실례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이 높은 과학자의 수준이라고 치하하신 화장품직장 배합작업반 반장은 공업시험소 연구사를 겸하고있고 원수님께서 화장도구만드는 모습을 친히 보아주신 로동자는 공정장치연구실 연구사를 겸하고있다. 이런 식으로 생산과 과학기술이 밀접히 결합된 검직체계가 공장의 기술발전과 제품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겠는가는 명백하다.

당정책을 최상의 경지에서 관철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보검을 튼튼히 틀어쥐고 첨단돌파의 나래를 편 창조의 기수가 되고 당의 뜻과 구상대로 명제품, 명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며 진보와 혁신에 사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누구나 이들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며 그 길에서 참다운 행복과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자. 이 땅에 만발하는 보답의 화원에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풍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사는 우리 일군들이다.

김해영 신의주화장품공장 지배인의 모습이 돋보인다.

전문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세계적인 화장품공업의 발전추세를 론하는 그의 모습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안겨오는것은 가슴속에 불타는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량심과 의리때문이다.

한가정의 주부이고 한개 단위를 떠맡은 일군이지만 늘 첨단을 향해 높은 목표를 세우고 아글타글 지식의 탑을 쌓아가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앞장에서 들고나아가는 이악한 녀성일군, 그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소중한것이 간직되여있다.

정녕한 가정의 딸, 어제날 대학 교원이던 자신을 중요단위의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불같은 의리이다.

비누직장이 개건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공장을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을 쏟은 그날의 사연도 오늘까지 가슴에 안고 사는 녀성지배인, 《그렇게 불편하신 몸으로 공장을 찾아오신 장군님을 뵈오며 전 속으로 울었습니다.》라고 하며 뜨거운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녀성일군, 바로 그런 불같은 마음을 지녔기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중요한 연구목표를 다름아닌 자기 자신의 연구과제로 정하였다.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당의 사랑속에 성장하고 그 믿음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믿음은 똑같은데 왜 보답의 길에서는 차이가 있는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뼈를 깎고 살을 저며서라도 보답하려는 우리 일군들의 고결한 량심문제, 의리문제이다.

당의 사랑과 믿음을 자나깨나 가슴에 새기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일군만이 주인답고 책임적인 일본새로 대오를 이끌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한몸 시슴없이 내댄다. 그런 일군만이 당정책관철이 잘 안되는것을 보면 밤잠을 못 이루며 가슴아파하고 밥이 탈도록 뛰고 또 뛰며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더없는 보람으로, 행복으로 여긴다.

누구나 《봄향기》화장품생산자들처럼, 이 공장의 일군들처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고결한 량심과 의리로 우리 원수님을 받들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하자. 그럴 때에만 이 땅에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고 인민의 행복의 락원이 하루빨리 펼쳐진다.

이 애국의 철리, 번영의 진리를 천만의 가슴에 새겨주는 내 나라의 《봄향기》는 그래서 소중하다. 값높은 삶의 향기, 아름다운 인생의 진미가 무엇인가를 력력히 새겨주는 우리의 《봄향기》는 바로 그래서 강산을 진감하고 시대를 풍미한다.

세상에 천만향기가 있다한들 이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것이 어디에 또 있으랴.

방 성 화

김 영 남 동 지 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를 만났다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루안 마하라니 인력개발 및 문화담당조정상을 만났다.

석상에서 특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죠꼬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와 편지를 전하여드릴것을 김영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특사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과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 일행, 람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 영 남 동 지 가

마로끄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바트

마로끄왕국 국왕

모하메드 6세 폐하

나는 마로끄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폐하와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7월 30일 평 양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치신 혁명의 어머니

어느덧 세월은 흘러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께서 고귀한 생을 마치신 때로부터 86년이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강반석녀사의 빛나는 생애를 뜨겁게 돌이켜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오늘도 강반석어머님께서 지으신 한편의 시가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

굳세고 변함없는 마음 간직하렵니다
숨져가는 나라의 딸이기에
울안의 꽃이 됨을 뿌리치고
겨레가 딛고 일어설 반석이 되렵니다
나라의 기둥을 굳건히 떠받드는
반석이 되렵니다
이 딸은 반석이옵니다

잊지 못할 시의 구절구절은 나라없던 민족수난의 그 세월 강반석어머님께서 지니시였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감회깊이 전하여준다.

강도 일제의 총칼밑에 짓밟혀 신음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몸이 그대로 나라를 받드는 튼튼한 반석이 될 불타는 열망을 안으시고 한생을 빛나게 사신 강반석어머님.

지금도 잊을수 없다.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강반석어머님께서 혁명의 거목을 키우는 밑뿌리가 되신 이야기들이.

주체17(1928)년 2월초 어느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집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 두자루의 권총을 내놓으시며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너의 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 권총 두자루를 나에게 맡기시면서 때가 되면 너에게 주라고 당부하셨다.

네가 이미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섰으니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총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총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못다 하신 조국광복의 위업을 꼭 이룩하도록 하여라.》

김형직선생님의 뜻을 지켜드리는 길이 곧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는 길임을 심장깊이 새기고 살아오신 강반석어머님이시였다. 바로 그래서 모진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시며 그 사연깊은 두자루의 권총을 소중히 보관하고계시다가 위대한 수령님께 넘겨주신것 아니랴.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자신께 닥쳐오는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바쳐 투쟁하시였다.

지하활동을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동지들과 함께 무송시가에서 적의 포위에 드시게 된적이 있었다. 포위를 헤치고 싸움을 하면서라도 헌성막으로 나가서야겠는데 무기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께 무기운반사업을 부탁하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느시여 한달음에 무기가 있는 장소로 달려가시여 소고기갈피속에 권총 두자루를 감추어가지고 날라오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총알이 나가게 되여있는 권총을 보시고 놀라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제워달라구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담세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놈이나 세놈쯤 달려들겠지, 쉽어들면 한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 일을 추억하시며 어머니의 그 말씀속에는 우리의 체험이나 사고방식으로써는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운 고결한 넋이 깃들어있었다고,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한 리해와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감히 흉내도 낼수 없는 용기였고 참사랑이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이 불같은 희생정신은 오늘도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빛나는 귀감으로 깊이 새겨주고있다.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볼 때에도 강반석어머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끝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사심없는 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동지들을 위해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그처럼 살림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식사를 보장하시였고 모진 고생속에서 애써 저축했던 돈도 아낌없이 다 내놓군 하시였다.

그 모든것이 강반석어머님께서 재봉일과 삯빨래질로 마련하신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동지들이였기에 어머님께 너무 그러시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아뢰이지 않았던가.

그때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동지들을 시종일관 친자식처럼 변함없이 대해주시였다.

강반석어머님의 이렇듯 따뜻한 사랑과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조선의 새 세대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성스러운 항일대전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시였으며 병약하신 몸으로 부녀회원들을 이끌어 군복도 만드시고 군량미도 마련하여 첫 무장대오의 창건에 기여하신 강반석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못 잊는다.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으실 때에도 눈물을 모르신 강반석어머님이시였건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끝없는 무장대오의 탄생을 보시고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격정을 이기지 못해하시며 《내가 오늘 우는것은 슬퍼서 우는것이 아니요. 나는 지금 기뻐서 울고있소. 총을 멘 이 아들들을 조선의 어머니들이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소. 꼭 조선을 독립시켜 우리 어머니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오.》라고 유격대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떠밀어주시였다.

남만원정을 앞두고 집에 들리시여 병상에 드신 어머님이 걱정되시여 선뜻 발길을 떼지 못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사랑하는 아드님과 마지막작별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심장을 아프게 죄였지만 어머님께서는 혁명을 위해 모진 마음을 먹으시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왜놈들이 나라를 강탈한지도 벌써 스물두해가 되여오는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칼을 크게 빼야 할게 아니냐.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강반석어머님의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였다.

그 마지막모습은 정녕 우리 수령님의 심장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잡은 위대한 어머님의 모습, 거룩한 스승의 모습이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강반석어머님의 불멸의 생애는 세기를 이어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이 나라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반석어머님의 애국의 숭고한 넋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진군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또 하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준공식 진행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 관람, 릉라곱등어관 참관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대회참가자들은 국립교예단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하였다.

평양교예극장에서 교예단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로병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체력교예 《총대조형》, 《그네널철봉》, 《무술리에서》, 《다각진회비행》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재치있는 기교와 힘있는 률동으로 주체교예예술의 새로운 발전면모를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끝없는 희열과 랑만을 안겨주는 희극교예, 환상요술을 비롯한 종목들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젊음을 되찾은 로병들의 즐거운 웃음이 넘쳐났다.

진정로병들에 대한 열렬한 축하속에 진행된 종합교예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한편 대회참가자들은 릉라곱등어관을 찾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곱등어들이 경쾌한 선률에 맞추어 공안고서서가기, 륜돌리기 등의 동작들을 펼쳐보이고 관람자들과 교감하며 춤도 추는 갖가지 재주는 로병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참관을 통하여 대회참가자들은 진정로병들이 건강장수하여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진정을 다해 따뜻이 돌봐주는 우리 당의 은덕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기간 생일을 맞는 전쟁로병들을 축하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생일축하모임이 4.25려관에서 있었다.

대회기간 생일을 맞는 전쟁로병들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김정해동지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한해두해 세월이 흐를수록 로병들의 건강을 두고 더욱더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로병들의 생일축하모임이 진행되게 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극진히 아끼고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들이 평양체류의 나날을 사소한 불편도 없이 즐겁게 보내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생일상도 차려주도록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로병들이 받아안은 생일상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육친의 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건강장수하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전쟁로병들은 혁명의 2세, 로혁명가라는 값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시고 인생의 영광을 다 누리도록 진정을 다해 극진히 관심하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였다.

생일축하모임은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암산정에 울리는 행복의 웃음소리

우리가 황해북도전쟁로병보양소를 찾았을 때는 전승 65돐을 며칠 앞둔 날이였다.

마침 보양생활을 하는 전쟁로병들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해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기쁨에 넘쳐있었다.

여러곳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소장은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쟁로병들의 행복의 보금자리가 훌륭하게 일떠섰다고 하는것이였다. 치료실과 오락실, 운동실 등 전쟁로병들의 보양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전쟁로병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쟁로병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기 위해 바친 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순결한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조옥실, 김영성동무를 비롯한 전쟁로병보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쟁로병들의 보양생활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다하고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 전쟁로병들의 건강을 항상 알아보고 입맛이 떨어질세라 쉬고 또 쉬는 종업원들…

이들뿐이니라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도 당의 사랑과 은정이 로병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 애쓰고있으며 사리원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들도 때없이 이곳을 찾아와 성의를 다하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경암산정에 로병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는것이 아니랴.

특파기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비배관리를 질적으로 하자

다수확을 목표로 세운 과학적인 작전

태천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태천군안의 농장들에서 다수확을 낸 목표밑에 논벼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군일군들이 변화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기 위한 작전을 보다 과학적으로 전개하고있는것이다.

논벼의 생육후반기영양상태를 개선할수 있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는것이 그 실례이다.

군일군들은 논벼의 생육후반기에 대한 영양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것은 이 시기 농작물이 많은 영양물질을 요구하기때문이였다. 특히 논벼의 생육에 불리한 조건들이 조성되는것으로 하여 이 문제를 더욱 중시하였다.

몸무러 애써 가꾼 논벼의 생육이 후반기에도 계속 왕성해지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한 일군들은 그 방도를 찾아나갔다. 이때 그들의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주기방법을 적용해나감에 대한 당의 의도였다. 종전처럼 화학비료를 그대로 주어서는 비료의 효과성을 높일수 없었다. 하지만 유기질복합비료나 유기광물질알비료로 만들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면 적은 량을 가지고도 그 효과성을 높여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었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둔 여러 농장들의 경험을 놓고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였다.

은흥협동농장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러했다. 이 농장에서는 알곡증산성과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서 어느 농장보다 앞장서나갔다. 그 과정에 효능높은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결과는 좋았다. 농작물들이 비바람과 고온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으며 이것은 곧 다수확으로 이어졌다.

파낵이 명백하면 신심이 생기기마련이다.

분발해나선 군일군들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다수확을 낼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비료를 최대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실천해나갔다.

일군들은 우선 유기질복합비료생산목표를 높이 세웠다.

당면한 비배관리와 론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면서 짧은 기일에 이 목표를 수행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적창조의 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한 군일군들은 농장들에 달려나갔다. 일군들은 알곡증산에 필요한것이면 무엇이나 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자고 하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어깨를 들이밀며 필요한 원료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한 자랑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떨쳐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계획하였던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은 앞당겨 끝나게 되였다.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이 복합비료를 농작물의 생육상태와 지력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포전에 나가 비료주기와 관련한 기술지도를 심화시키면서 품들여 마련한 비료들이 생육후반기의 영양상태개선에 허실없이 리용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반적포전에서 다수확을 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여가고있다.

군일군들이 병충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든것도 긍정할만 한 일이다.

일군들이 이 사업에서 힘을 넣은것은 논벼의 흰잎마름병을 막는것이였다.

이 병은 대체로 온도가 높고 습할 때 많이 생긴다. 특히 많은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물량이 늘어났던 포전의 논벼들에서는 흰잎마름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할수 있다. 일단 이 병이 발생한 후에 농약을 뿌려주면 구제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 경험에 기초하여 흰잎마름병을 예방하도록 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일군들은 농장들에서 예찰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 높이도록 하는 한편 논벼의 생육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포전별로 비료주는 량을 바로 정하도록 하였다.

례하면 일의 색이 변하지 않은 포전에는 당분간 식물성장촉진제로 잎덧비료주기만 진행하였다. 이런 포전에 비료를 더 주면 벼흰잎마름병이 생길수 있기때문이였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날씨조건에 맞게 비료주기를 제때에 하여 논벼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지어주도록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군일군들은 농장들에서 대용농약을 자체로 생산리용하도록 하면서 병해충이 발생할수 있는 포전들에 대한 농약뿌려주기를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생벌을 리용하여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였다.

군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헌신적인 실천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포전들에서 논물관리와 습해를 막기 위한 사업도 옳은 방법론을 찾아 하나하나 실천하여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대오의 기수인 지휘관들의 빈틈없는 작전에 전투의 승패가 달려있다.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군일군들의 일본새는 모든 포전들에서 다수확을 낼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잎덧비료주기가 은을 내게

황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황주군안의 농장들에서 논벼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눈길을 끄는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잎덧비료주기에 중심을 두고 논벼의 생육후반기영양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결과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논벼의 목표이삭아 지수는 골종별로 충분히 확보되였다.

그럴수록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논벼의 생육후반기영양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분발해나섰다.

일군들은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합쳐가며 해결방도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잎덧비료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이들은 모든 농장들에 배냥식분무기가 원만히 마련된 조건에서 담당포전들에 대한 잎덧비료주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것은 농사에서 질소비료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없애고 린, 카리, 규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구색이 맞게 줄데 대한 당정책의 진수를 파악하고 내린 승산이 확고한 결심이였다. 더우기 올해에는 포전별모내기가 적기에 결속되였고 각종 영양액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수요도 례년에 없이 높아진것만큼 종전처럼 이 사업을 농장의 제한된 몇명의 성원들로 진행한다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일군들은 생육후반기의 영양관리개선은 실무적문제이기에 앞서 당정책적요구라는 관점에서 잎덧비료주기를 알곡증산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도로 찾아쥐고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해당 단위와의 련계가 밀접해지고 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현장과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비롯한 효능높은 비료가 충분히 마련될수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군일군들은 과학적인 잎덧비료주기작전을 전개하였다.

일군들은 비료를 농장들에 지장없이 보장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와 함께 포남, 구포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이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특히 이들은 각종 영양액을 잎덧비료로 정확히 준 포전에서는 지나친 욕망을 앞세우며 필요이상의 비료를 준 포전에서보다 더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일수 있다는것을 농업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대비자료를 가지고 알려주어 누구나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곧들어 조직한 잎덧비료주기작전이 정확히 추진되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잎덧비료를 준것만큼 알곡이 증수된다는것을 지난해의 농사과정을 통하여 더 잘 알게 된 농업근로자들도 담당포전들에 대한 잎덧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갔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한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충정의 일념을 안고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비배관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실효성있게 조직한 포전기술학습

대동군 학수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당면한 농작물가꾸기가 한창인 대동군 학수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어느 한 포전에 우리가 이른것은 작업의 쉴참이였다. 팔에 낀 완장으로 보아 논물관리공이 분명한 여러명의 농장원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있었다.

어린 이삭이 생겨 자라는 시기에 물말리우기를 지나치게 하면 벼의 이삭형성과 자라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논토양이 지나치게 말라 왕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물대는 주기를 바로 정해야 한다. 그런가하면 비료를 칠 때의 논물깊이는 또 다르다. …

삽을 들고 동작을 실지 해보이면서 논물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의 수준도 높았다. 서로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라도 더 깊이 배우려고 애쓰는 논물관리공들의 열의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알고보니 자연반 기술원이 논물관리공들앞에서 논물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설하는중이였다.

쉴참에 격식없이 진행되는 포전에서의 기술학습이였다.

기술학습뒤끝에 비료주기때 논물관리에서 주의할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곳에 나와있던 농장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농장에서 농장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포전에서의 기술학습을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사실 농장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수행하는데서 농장원들의 기술실무수준과 책임성을 높여주는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로부터 농장일군들은 영농공정별로 보여주기사업과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포전에서의 기술학습에도 큰 힘을 넣기로 하였다. 포전에서 진행하는 기술학습이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우선 시간과 로력이 절약되였다. 현장에서 진행하니 농장원들이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알수 있었다.

더우기 이 사업을 포전에서 진행하니 농장원들이 과학기술학습을 생활화하게 되여 좋았다.

포전에서의 기술학습은 또한 실효가 컸다. 눈앞 익어도 손앞 설다고 농장원들이 강의받은 내용을 실지 해보자면 잘 안되였다. 하지만 포전에서 실물을 놓고 동작을 배합하여 진행하니 그야말로 산지식으로 되였다.

일군들은 포전들에서 당면한 논물관리와 잎덧비료주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해야 할 영농작업과 관련한 과학기술학습도 예견성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농장원들에게 이삭이 팬 다음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카리비료 등을 섞어 잎덧비료로 주면 왜 좋으며 그 기술적요구를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도록 하였다.

과학농사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장원들의 기술수준제고는 영농작업의 질보장이다. 이것은 곧 다수확의 성과로 이어진다.

생산자대중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준비시킬수 있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 농작물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는 농장일군들의 창조적인 사업태도는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고온피해방지를 위한 논물관리에 힘을 넣고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락랑구역 송남협동농장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는데 맞게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지금처럼 대기온도가 높으면 논물이 빨리 더워지는데 이때 논물관리를 바로하지 못하면 논벼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이런데로부터 농장일군들은 고온피해를 막기 위한 방도를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서 찾았다.

농장에서는 논물관리를 깐지게 하는데서 논물관리공들의 역할문제를 중시하였다. 그것은 논물관리공이 논물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이며 그들의 역할에 의하여 한해농사성과가 크게 좌우되기때문이다.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적지 않은 논물관리공들이 과학적인 논물관리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있을뿐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지난 시기의 경험에만 매달리면서 현시기 불리한 기후조건에 맞게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고있었다.

당의 뜻대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르면 아무리 책임성이 높다고 해도 맡은 일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현실은 논물관리공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그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줄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이것을 포착한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기술전습회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기술전습회는 논물관리공들이 자기가 맡고있는 포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것과 함께 그에 맞는 논물관리방법을 알려주는데 기본을 두었다. 그리고 논벼의 생육상태에 따르는 물깊이와 온도보장을 비롯하여 논물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도록 하였다.

논물관리공들은 기술전습회를 계기로 강을 끼고있는 조건을 리용하여 흐름식, 포화수식 물대기방법으로 논물관리를 하면 뿌리썩음병을 막을수 있고 논벼생육에 유리한 논물온도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깊이 알게 되였다.

그들은 배운 지식을 실천에 적극 활용해나갔다.

농장에서는 논물관리공들에 대한 조건보장사업도 따라세웠다. 관리위원장은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논물관리공들에게 안겨주면서 그들이 맡은 일을 잘 하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과학적인 논물관리는 다수확의 담보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간다면 어디서나 풍요한 작황을 펼쳐놓을수 있을것이다.

김성진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 녕변군 대천협동농장에서 — 본사기자 백을

병충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황주군 흥서협동농장에서

황주군 흥서협동농장에서 병충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농장에서는 예찰에보를 잘하여 병해충의 발생을 미리막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있다. 포전들의 합리적인 위치에 예찰초소들을 정하고 작업반기술원들이 병해충발생동태에 대한 감시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고있으며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농약준비도 잘하고있다. 이들은 식물성농약들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는 등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특히 기술학습을 통해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에게 병충해막이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원리적으로 깨우쳐주고 앞선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농장원들이 병충해막이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이들은 비료주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고 습지대밭에 후치질을 깊이 해주어 여러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나라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이바지할 열의밑에 농약주기와 나비등리용을 비롯한 해충구제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세우면서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조선혁명박물관창립 70돐기념

혁명사적부문 학술토론회 진행

조선혁명박물관창립 70돐기념 혁명사적부문 학술토론회가 30일에 진행되였다.

평양시안의 혁명사적부문, 과학교육부문, 당간부양성기관 일군들, 교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제1부관장 박경식동지, 김일성고급당학교 강좌장 리경철동지, 사회과학원 소장 김인숙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최수남동지, 혁명사적지도국 처장 최성철동지, 조선혁명박물관 부장 최춘희동지가 토론하였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절세위인들께서 밝혀주신 혁명전통교양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깊이있게 해설론증되였으며 최근년간 혁명사적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혁명의 전 력사적로정이 응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체기지, 전초기지이며 혁명대학입니다.》

토론자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박물관으로 전변된것은 주체적인 혁명박물관의 본보기를 창조한 중대한 력사적사변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이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전일적으로,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여 보여주고있으며 새로운 전시형식과 방법으로 전시품들의 직관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사적강의를 당정책적선에서 통속적으로 생동하고 감명깊게 하는것은 혁명전통교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보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사적사업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혁명사적사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혁명사적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혁명사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도력의리심에 떠받들려 만수대언덕과 각 도들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더욱 굳게 이어지게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차넘치게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이 깃든 혁명사적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 종합체계화하기 위한 사업과 혁명사적물보존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며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침으로써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청소년과외교양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지도교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전국청소년과외교양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지도교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였다.

답사자들은 24일 혜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출발모임을 가진 다음 력사의 땅 보천보를 향하여 보무당당히 행군을 시작하였다.

보천보에 들어선 답사자들은 가림천기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먼저 원쑤격멸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여 일제의 총칼밑에서 신음하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전하는 종합해설을 듣고 보천보전투지휘처,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돌아보았다.

리명수혁명사적지, 청봉숙영지, 건창숙영지 등 여러곳에서 답사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길을 개척하시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백두의 혁명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삼지연대기념비와 부주제군상들, 삼지연못가, 구호나무를 비롯한 여러 사적물들을 돌아보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 혁명의 1세들이 높이 발휘하였던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가슴에 새겨안았다.

답사자들은 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참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에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로의 답사행군길을 이어가면서 그들은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력사적인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신 락월한 령장의 거룩하신 자욱자욱을 심장마다에 쪼아박았다.

주체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답사자들은 명세모임을 가지였다.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국장 장헌철동지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후대교육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믿거름으로, 참다운 교육자로 일해갈 맹세를 다지였다.

답사자들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력사가 아로새겨진 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그들은 당이 제시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청소년과외교양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답사기간 그들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발표모임, 문답식학습경연, 창작가, 지도교원들의 기량발표회와 창작품발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를 위하여 환영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를 환영하여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내각부총리 리룡남동지,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뿌안 마하라니 인력개발 및 문화담당조정상과 일행,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죠꼬 위도도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 도착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뿌안 마하라니 인력개발 및 문화담당조정상이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와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특사와 일행을 맞이하였다.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 귀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특사인 뿌안 마하라니 인력개발 및 문화담당조정상이 3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최희철동지와 밤방 히엔드라스또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특사와 일행을 전송하였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임명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로 리영철동지가 임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인민보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유훈관철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평양산원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년간 평양산원에서는 의료봉사사업과 과학연구활동,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대중체육활동 등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사관철하며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는 이 단위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혁신적인 일본새를 떠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녀성이라면 누구나 친정집이라고 즐겨부르는 평양산원에서 아기를 낳고싶어한다. 아마도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그 어느 단위보다 뜨겁게 깃들어있기때문일것이다.

하기에 이곳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인민보건실천에서 앞장선 단위의 영예를 계속 고수하기 위하여 사업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인민보건실천에서 큰 온을 내자면 뭐니뭐니해도 인민들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치료예방사업이 잘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이곳 일군들이 내민 사업이 치료에서 정성을 다하여 환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료일군들을 널리 소개하고 일반화하는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였다.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적극 찾아 내세우는 이러한 사업방법이 산원의 전반적인 의료봉사사업에서의 훌륭한 결실로 이어졌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군들은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발전하는 현실은 치료예방사업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더우기 환자들속에서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자신있게 치료할수 있는 의료일군들이 적다는 사실은 일군들로 하여금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야 할 절박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하여 몇년전부터 이곳 일군들이 내민 사업이 바로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최단기간내에 급속히 늘이는것이였다. 들우에도 꽃을 피우는 뜨거운 정성에 과학기술이 안받침된다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일군들은 한해에 30명정도의 학위소유자를 키울 방대한 목표를 내걸었다.

병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였을 때 일부 의료일군들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도그럴것이 지난 시기에는 한해에 한두명의 학위소유자가 배출되는것도 큰것으로 여겨왔던것이다. 과학연구사업이 한두해에 끝을 보는것도 아니고 의료일군들의 실력이 그렇게 단번에 높아질수 있다는 담보도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일군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만일 수백명이나 되는 의료일군들이 학위론문집필사업에 너도나도 뛰여든다면 수백건의 미개척분야를 개척하는것으로 될것이며 이것은 나아가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예방치료와 과학연구사업을 세계적수준에서 잘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빛나게 관철하는데로 이어질것이기때문이였다.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일군들의 호소는 의료일군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그러나 목표가 세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일이 풀리는것은 아니였다. 문제는 의료일군들모두가 학위론문을 집필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것이였다. 그래서 일군들부터가 학위론문집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의료일군들의 실력을 높일수 있는 사업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 나날 전자도서실을 잘 꾸려놓고 풍부한 자료기지를 의료일군들에게 안겨준것, 심의위원회 성원들의 안목을 높여 연구종자들이 알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준것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에는 궁정자료를 찾아내는것으로 만족하던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즉 산원의 사업이 모든 의료일군들을 땅땅 어른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데로 지향되였다.

몇년사이에 150여명의 학위소유자가 배출되고 보건부문에서 진행하는 여러 전시회들에서 산원이 우승의 자리를 차지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다음으로 이곳 일군들은 늘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킬수 있는 사상교양사업을 강도높이 벌려 의료봉사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수술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모든 과들이 한개 대상씩 맡아나섰다. 일군들은 녀성들이 대부분이고 인원도 적은 어느 한 과의 의료일군들속으로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종합수술장을 잘 꾸려 우리의 녀성들이 수령님들의 사랑과 은정을 제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일군의 이야기는 과의료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하여 진영실, 리은주동무를 비롯한 과의료일군들은 작업을 시작한지 불과 5일만에 벽체비장, 바닥깔판깔기공사 등을 완성하였으며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수술장의 구석구석까지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우리 녀성들만의 힘으로 방대한 공사를 떠 해낼수 있겠는가고 걱정만 앞세우던 이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불과 10여일만에 제일먼저 끝낸 사실을 놓고 많은 의료일군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프로그람작성자도 아닌 김선희과장을 비롯한 약무일군들이 의약품검정지원체계프로그람을 개발할것을 결심하였을 때에도 제일먼저 지지하고 밀어준것은 다름아닌 병원일군들이였다.

어느날 의약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이곳 과를 찾았던 일군들은 프로그람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대답하게 말하불지 못하고 현 조건만 생각하는 약무일군들에게 무엇이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힘을 준 일군들은 인차 이 분야의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주었으며 자신들이 직접 해당 단위들을 찾아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오기도 하였다. 의약품을 정확히 검정할수 있는 새 프로그람은 과의료일군들의 힘으로 끝내 개발되고야말았다.

유선질병에 대한 수많은 앞선 치료방법들을 도입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둔 유선종양연구소와 부인질병에 한하여 1만 2천여건의 복강경수술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한 3부인과 등 산원의 모든 단위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총풍기가 되여 적극 떠밀어준 일군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평양산원 일군들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자면 그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부터가 혁명열, 투쟁열로 심장을 세차게 끓여야 한다는것이다. 조건이 어려울수록 일군들이 유능한 작전가가 되여 방도를 내놓을줄 알고 대중의 심금을 불러일으킬 때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령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옥별

보건분야의 기관차, 견인기

◇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령도업적단위들이 기세좋게 나아가고있다.

사회주의우월성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는 보건부문도 례외가 아니다. 각지의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의료봉사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투에서도 떤 앞자리에는 령도업적단위들이 서있다.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힘있게 나아가는 보건부문의 령도업적단위들을 돌아보고 보건성의 최경철부국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의리라는 관점이 역력같이 자리잡고있는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울리기마련입니다.》

그렇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용을 쓰며 일떠서면 다른 단위들이 따라 일떠서게 되고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이어질수 있다.

◇ 보건분야의 기관차, 견인기!

여기에는 사회주의보건을 지키고 빛내이는 투쟁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할 보건부문 령도업적단위들의 투쟁목표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이 자기 단위를 시대의 전형단위로 추켜세워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나가야 합니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근본원칙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은 중요하게 보건부문에 깃들어있는 당의 령도업적을 어떻게 빛내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 집대성되여있는 곳,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바로 당의 령도업적단위이다.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령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나갈 때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고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될것이다.

◇ 령도업적단위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당의 보건정책관철의 맨 앞장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령도업적단위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관차, 견인기가 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도 남먼저 승전포성을 울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결사의 각오부터 가져야 한다.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령도업적단위들의 생명선이라면 모든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견인불발의 투지는 령도업적단위들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근본요인이다.

지금 조건이 어렵지만 기적을 창조하고 훌륭한 성과들을 내놓는 령도업적단위들을 보면 일군들부터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과 함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몸에 꽉 차있는 실천가들이다.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은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뼈와 살에 새겨놓고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과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

하루빨리 우리 나라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는것이야말로 일군의 본분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행정지도기관들이 령도업적단위들을 잘 이끌어주어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의 령도업적단위들이 기관차, 견인기가 되여 소리치며 전진할 때 우리의 사회주의영상은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이며 온 나라의 곳곳에서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릴것이다.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첫자리에 놓고

약초밭에 뜨거운 정성을

최근 삭주군 금부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약초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몸소 이곳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약초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의 크나큰 영광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이곳 병원에서는 이악하게 노력하여 병원주변과 가까운 산에 많은 부지의 약초밭을 조성해놓았다. 장필숙원장을 비롯하여 의료일군들은 매일 수십리구간을 돌며 담당구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치료대책을 세워주는 바쁜 속에서도 약초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해 애쓰고있다. 치료사업의 짬시간을 리용하여 약초밭김도 매주고 물도랑도 치면서 약초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정성껏 관리하고있다.

몸내여름내 정성들여 가꾼 약초를 가지고 의료일군들은 담당구역 주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제조하여 환자치료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여

개천시 준혁리인민병원에서 호담당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참신하게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병원에서는 호담당의사들이 담당구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환히 꿰들고 사소한 질병도 제때에 발견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의료일군들모두가 모이는 병원적인 협의회나 지역총화모임때에는 호담당의사가 담당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함께 치료대책을 토론하는 제도를 세우고있다.

이것은 호담당의사들이 서로의 치료경험들을 교환하고 약제사들이 주민들의 수요와 체질에 맞게 여러가지 효능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호담당사업이 참신하게 진행되고있는 속에 상급병원과 송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누구나 담당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방조속에서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다.

위생선전활동을 방법론있게

문덕군 립석리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위생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이곳 병원에서는 여러 계기때마다 매 의료일군들이 준비한 위생선전내용을 가지고 위생선전경연을 진행하군 한다.

경연에서 일군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학지식들과 상식들을 그들의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가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위생선전사업정형을 평가하군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일군들은 경연에서 평가된 좋은 상식들과 선전방법들을 가지고 주민들속에 들어가 해설도 하고 선전도 하면서 누구나 예방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자기 건강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서로가 좋은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내여 위생선전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는 과정에 이곳 의료일군들의 실력도 한층 높아지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관철에서 위생선전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립석리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은 늘 주민들속에 들어가 위생선전활동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최근 남포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의료기구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올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공장개건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10여개의 건물들에 대한 외부미장을 전부 끝낸것을 비롯하여 공사량의 70%계선을 돌파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내부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마감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기구생산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진단, 치료설비들과 의료기구들의 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높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에서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효능높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천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드높은 열정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말부터 낡은 건물들을 대담하게 헐어버리면서 개건공사를 진행하여왔다.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번뜻하게 개건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한정생

드세찬 공격전으로 개건공사 추진

남포의료기구공장에서

마음써오신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남포시의 책임일군들은 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 불타는 마음을 안고 시안의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200여명의 근로자들로 돌격대를 무어 공장에 파견하였다.

많은 량의 박토를 처리하고 낡은 건물들을 헐어버려야 할 방대한 공사과제가 제기되자 공장의 종업원들과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공사과정에는 백여그루나 되는 나무들의 현 위치를 보존하면서 공사를 내밀어야 하는 등 뜻밖의 정황들이 수시로 조성되였다. 하지만 완강한 투지와 혁명적열정을 안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질좋게 생산할 그날을 그려보며 이들은 질풍을 지고 달리며 공사속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돌격대원들과 공장종업원들은 공사를 기한전에 끝낼수 있도록 새로운 공법들을 련이어 도입하며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0여개나 되는 건물들에 대한 개건 및 보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설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총정의 열도로 들끓는 건설장을 찾은 보건성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주었다.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을 찾은 성의 책임일군들은 2천여㎥에 달하는 지붕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의료기구공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수시로 내려와 공사실적을 알아보면서 자재들을 제때에 선행시켜주기 위한 방도도 토론하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 점은 없는가도 알아보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총돌격전을 벌려 어렵고 방대한 외부공사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낸 돌격대원들은 내부공사와 주변정리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공사를 책임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공정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돌격대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열의가 비상히 앙양된 돌격대원들은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직극 이바지하게 될 유리직장, 주사기직장, 체온계직장 등을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특히 이들은 건물들의 바닥들을 기작업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는가 하면 정양소와 양어장건설에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짬시간에는 주변정리사업도 직극 따라세우고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속보들과 격식없이 진행되는 화선식경제선동은 돌격대원들을 새 기적창조에로 더욱 고무추동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와 투쟁열의가 훌륭한 결실로 이어질 그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연구사업성과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유전의학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씀

제33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할 여러 나라 야영단들

여러곳 참관

제33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할 여러 나라 야영단들이 자연박물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로 훌륭히 꾸려진 박물관의 우주관, 동물관, 고생물관 등을 돌아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로씨야소년야영단(1조) 단장 아르툼 쌈쏘노브는 박물관을 참관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생소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그이와 같은 위대한분만이 학생소년들을 위하여 이렇듯 웅장한 자연박물관을 마련해주실수 있다고 말하였다.

야영단들은 이밖에 주체사상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

승호군식료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명제품, 명상품의 합격키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들의 평가이다. 진정으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야 명제품, 명상품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우리는 승호군식료공장을 돌아보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닌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더 잘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두해전 리선봉, 한영남동무들이 공장의 책임일군으로 새로 임명되여왔을 때만 하여도 공장의 현대화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제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였다.

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볼수록 지배인의 생각이 깊어졌다.

생각을 거듭하면 지배인은 종업원들앞에 한장의 전망도를 펼쳐놓았다. 그가 자체의 힘으로 시대적요구에 맞게 생산건물들은 물론 설비들도 일신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자 종업원들은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인민의 사랑받는 공장으로 될수 있다는 지배인의 진정어린 호소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먼저 당과류작업반의 생산건물을 개건하고 설비들을 일신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당과류작업반의 생산건물개건공사는 그렇다쳐도 과자생산설비제작은 아름찬 과제였다. 수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량심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모든것을 우리의 힘으로!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이런 비상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웠다.

책임기사 최순남동무의 말에 의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낡은 과자생산설비를 통채로 들어낸 조건에서 새 설비제작이 제대로 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섰다.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과 군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이들의 사업을 도와나섰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밤이 밝도록 뛰였으며 김광남, 최관호, 오성복동무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군의 일군들은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어떤 날에는 지배인이 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기술자를 차에 태우고 먼길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시운전이 실패하였을 때 지배인은 불편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술자들과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드디여 첫 시제품이 나오자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들을 더 높은 비약에로 떠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군당책임일군들이였다.

만세를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다. 겉모양뿐아니라 그 맛에서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의 요구이다. …

이때에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질제고에 달라붙었으며 이런 피타는 노력속에 공장에서 생산한 당과류는 군내주민들의 호평을 받게 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였다.

그 나날에 공장에서는 소독기들과 발효식초생산설비도 자체로 제작하고 술작업반의 생산건물도 개건하였으며 질좋은 광우유를 생산하여 락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에게 정상공급하는 성과도 거두게 되였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자랑찬 성과들을 련속적으로 이룩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일해나갈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독자의 편지

그 진정 뜨겁습니다

것이였습니다.

저의 딸애가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였을 때에도 농장일군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학용품은 물론 비옷과 장화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갑자기 앓아눕게 되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농장일군들은 농사일로 바쁜 속에서도 친혈육의 정을 다하여 하루빨리 병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갖가지 별식을 마련해가지고 병원에까지 찾아와 진정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친부모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저의 남편의 건강회복을 위해 해마다 많은 보약제도 마련해주면서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해나가도록 지성을 기울여온 그들의 뜨거운 정에 떠받들려 우리 집에서는 행복의 웃음꽃이 계속 피여나고있습니다.

참으로 만나볼수록 인정이 많은 일군들입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줄 아는 이런 훌륭한 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야군 동흥리 21인민반 김영실

20세기를 대표하는 불세출의 대성인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이 칭송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칭송하는 글들을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이 게재하였다.

신문 《나소트껜스끼 라보치》는 력사는 수많은 위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김일성주석과 같이 세기를 이어가며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고계시는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그이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신 희세의 정치원로,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세인을 감동시키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라고 찬양하였다.

인터네트잡지 《뎀 위위》는 김일성주석은 한 나라의 수령이시기 전에 인민의 생활과 운명을 책임지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이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오래전에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되였다.

주석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존귀하신 영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소중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

신문 《브이보르》는 이렇게 썼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였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인터네트홈페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그이의 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한다

영국,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6돐에 즈음하여 영국, 스위스 단체들이 4일 공동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7.4공동성명발표는 조선통일투쟁사에 력사적인 사변으로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민족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변불휴의 로고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7.4공동성명에는 주석의 조국통일사상이 담겨져있다. 또한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와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통일운동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7.4공동성명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지난 4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북남공동성명과 선언들의 정신을 모두 반영하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채택된 성명, 선언들은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애국업적이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한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미더운 옛 분회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포들의 기본생활단위인 분회조직들을 활성화하여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총련이 세대와 세기가 바뀌여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외교포운동의 선구자적모범으로 자랑떨치고있는데는 총련조직과 동포사회를 받드는 뿌리가 되여온 분회장들과 분회위원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도 깃들어있다.

그 어떤 압박과 보수도 바람이 없이 조국의 통일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그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다.

으뜸가는 분회로

총련 도꾜도본부 아다찌지부산하에는 2중애국영예기를 쟁취하고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분회》(종합모범분회)칭호를 수여받은 단위가 있다. 그 단위가 바로 모도끼6분회이다. 지부산하 12개 분회들가운데서 선도자적역할을 수행하는 이 분회의 분회장은 올해 55살 난 강상훈동포이다. 그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다 동포민족권에 망라하여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회를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 몫을 다해왔다. 정상적으로 동포가정들을 찾아가 애로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는것은 강상훈분회장이 철칙으로 삼고있는것이다. 혈육의 정 넘치는 방문담화사업의 효과는 참으로 컸다.

높이 세운 목표들은 빛나게 달성되였고 대오의 단결력도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총련 도꾜조선제4초중급학교에 지혜의 자금을 희사한것을 비롯하여 분회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그 직접적결과들이였다. 그 나날에 강상훈분회장은 동포들 특히 새 세대들의 창의창발성을 계발시켜주고 잠재력을 폭발시킨다면 반드시 새 전성기 애국애족모범창조운동이 요구하는 새 모습의 분회를 꾸릴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분회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대가정으로서 동포사회의 자랑으로 되고있지만 강상훈분회장은 절대로 만족을 모른다.

얼마전 총련 오사까부본부 이꾸노니시지부산하 나까가와니시분회에서는 새 분회장과 분회위원들을 선출하였다.

모두 40대의 새 세대 동포들이였다.

애국위업의 일선에 나서게 된 그들은 누구나 뜨거운 고무격려의 정이 실린 미더운 시선을 의식하였다. 이전 분회장 한석송동포의 눈길이였다. 근 40년간 부분회장, 분회장으로 사업하면서 많은 일을 해놓은 그의 모습을 보니 새 분회장과 분회위원들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소탈하고 인정많으며 동포들을 위해 마른일, 궂은일 가리지 않은 한석송동포가 아니던가. 하기에 동포들은 그를 무척 존경하며 가정의 크고작은 일들까지 허물없이 터놓군 하였다. 분회는 동포들이 의지하는 조직, 화목하고 약동하며 민족적정서가 철철 흘러넘치는, 동포사회에서 으뜸가는 분회를 기어이 꾸려놓겠다는것이 그의 결심이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 집안으로 되였다. 동포사회를 밀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절은 민족적향취와 화목한 동포애의 정이 흘러넘치는 이 분회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런 따뜻한 대가정속에 파묻히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어하였다.

이번에 새 세대 동포에게 분회장사업을 넘겨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석송동포를 우리 분회장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다 돈에 의해 빚어지고 지배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일본사회에서 분회안에 이토록 아름답고 고상한 인륜도덕과 후더운 정이 흐르게 하기 위해 남모르게 노력한 옛 분회장을 동포들이 변함없이 따르고 존경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려정을 가로막고있는가

먼길을 떠난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에 부닥치기마련이며 그것이 행운이든 재앙이든 그 모든것을 각오하고 헤쳐나갈 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수 있다.

하물며 온 겨레의 기대와 념원속에 새로운 려정을 시작한 북남당국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북남관계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이후 극적으로 마련된 평화번영과 화해단합의 흥풍속에 새로운 력사의 장을 펼치고 개선과 발전의 길을 헤쳐가고있다.

적대와 불신이 없고 전쟁과 대결을 모르며 우리 민족끼리 화해와 신뢰, 평화와 안정, 협력과 교류속에 북남관계개선의 휘황한 전도를 열어나가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다.

이 공통된 의지와 념원에 따라 북과 남사이에는 체육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문별 실무회담들이 련속 이루어지고 개성공업지구에 공동련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위한 준비사업도 일정대로 진척되고있다.

군사적긴장완화와 전쟁위험해소를 위한 군사회담과 접촉도 진행되고있다.

북남통일통구경기대회가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벌어지고 남조선 대전에서는 탁구단일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승을 거두는 등 민족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이 모든것은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 치해있던 지난해말까지의 북남관계에 대비해볼 때 상상밖의 경이적인 변화인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펼쳐지고있는 이 광경들이 판계개선의 거세찬 실천적흐름으로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분위기조성으로 그치고있다는데 있다.

오죽하면 거머쥐면 잡히지 않는 비누거품에 불과하다는 평까지 나오겠는가.

부풀었던 비누거품이 꺼지면 형체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헌 북남관계를 굳이 이렇게밖에 평할수 없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현재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결만 번지르르할뿐 실속있게 진행되는것은 거의나 없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뿐 그 어디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볼래야 볼수 없다.

온 민족이 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대결극면과 전쟁위험의 일시모면이 아닌 항구적인 화해와 평화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취하고있는 판계개선조치와 협력교류를 위한 실행방식은 어떠한가.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조선당국의 공식은 《비핵화진전에 따른 관계개선추진》이다.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석달이 되여오는 현시점에서 몇가지 실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남조선당국은 5.24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인정을 끼고 북남관계를 다루다나니 제입으로 말 한마디를 하자고 해도 이쪽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제 팔다리를 움직이자고 해도 저쪽의 기분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등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제스스로 곤우을 치르고있다.

서해지구의 취꼬리만 한 군통신선을 련결하는 극히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 위한 공동련락사무소작업에 필요한 몇kW용량의 발동발전기를 들어오는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의 연출자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다.

철도,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그러하다.

이 사업은 군사분계선에 가로막혀 인공적인 섬의 신세가 된 남조선으로서는 그 무슨 《협력사업》이기 전에 자기자신의 숨통을 틔우는 절실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1차회의요, 2차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백마디 말하느니 하나의 실천행동이 더 필요한 때라고 추궁하자 남측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그런다고 푸념을 늘어놓고있다.

남측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여건》이란 미국과 유엔의 대조선제재가 해제되였을 경우 다시말하여 그 누구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로서 이를테면 저들은 감나무밑에 가만히 누워 홍시가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겠다는것이다.

지적할것은 대북제재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 스스로 진 오라줄이라는것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불순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불법무법의 계략이 다름아닌 대조선제재이다.

우리 공화국이 외세의 침략과 전쟁위협으로부터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진행했다고 하여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천부당만부당한 조치가 바로 대북제재인것이다.

만약 이러한 론리대로 한다면 오늘날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데 이어 북부핵시험장까지 폐기하는 용단까지 내린 상황에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황당하고 어이없는것은 현 남조선당국이 이전 보수집권시기 조작된 단독대북제재라는것들을 부둥켜안고 늘어대는 모양새이다.

5.24대북제재조치라는것만 보아도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위기출로를 위해 《천안》호침몰사고를 《북소행》으로 날조하여 조작해낸 한갖 서툰짜리 대결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

보수패당의 5.24대북제재조치의 부당성을 곧잘 외워대고 박근혜역도가 독단으로 폐쇄시킨 개성공업지구재가동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격분을 표시하던 현 집권세력이 무엇때문에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손과 두발을 묶이밀다못해 북남관계까지 그들에 얽어매놓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민족우에 외세를 올려놓고 북남관계보다 《동맹》을 우선시하며 어려운 국면타개보다는 쉽고 평탄한 길만 골라짚고 북남관계의 분위기조성으로 치적광고에만 집념하고있기때문이다.

그로 하여 청와대주인은 바뀌였지만 이전 보수《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폐쇄나 금강산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목록에 새로운것을 덧올려놓고있는 형편이다.

말이 난김에 묻건대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된것이 과연 유엔제재때문인가 하는것이다.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6.15시대의 옥동자로, 북남관계의 마지막보루로 통음을 울리며 끄떡없이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를 천하악녀 박근혜역도년이 《국회》동의는커녕 그 누구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독단으로 도륙내지 않았는가.

현 집권세력이 초불민심에 화답하여 제1차적조치로 개성공단재가동문제를 들고나온것도 이때문이였을것이다.

금강산관광재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명산으로 이름높은 금강산은 민족의 자랑이고 겨레의 긍지로서 다른 그 누구보다 우리 겨레가 마음껏 경치를 향유하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

자기 민족의 명산을 부감하는데 외세의 제재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타국의 이방인들은 제 마음대로 금강산관광을 하고있지만 지척에 있는 동족은 오도가도 못하는것이 북남관계의 가슴아픈 현실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와 민심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하여 진정한 태도와 옳바른 자세를 취해야 할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이요, 의존할것은 자기 민족이요, 손잡을것은 동족의 선의의 손길뿐이다.

북과 남이 서로 화해단합하고 민족공동의 부흥을 이룩하며 군사적긴장을 해소하고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는데 어느 외세도 제일처럼 달라붙어 노력해줄수 없다.

불과 29일만에 2차례나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이 과연 그 누구의 승인이나 그 무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였는가.

온 민족과 세계앞에 공언한 판문점선언은 정세파동이나 주변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이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에 그 뜻을 두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남조선당국의 《여건조성》이라는 말치레가 대북제재준수라는 무모한 행동조치로 번져지고있는것이다.

북남협력교류사업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성원들에 대해 형형색색의 구실을 붙여가며 각방으로 억제하고있으며 압박을 가하고있다.

남조선통일부는 북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려항공이 아닌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도록 뻐젓이 요구하고있으며 물 한 고뿌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게 해방을 놓고있는 등 파거 보수《정권》의 대결태와 다름바없이 치사하게 놀아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면적인 제재압박만이 북조선비핵화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제재압박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제재압박을 해제하면 비핵화가 늦어진다.》고 고아대는 외세에 발라맞추며 북남관계의 《속도조절》론까지 내들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청간에 대양건너 미국의 눈초리가 사나와지면 청와대의 두다리가 풋풋해진다는 말이 나돌고있겠는가.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북남관계를 아무러한 고려도 타산도 없이 망탕 다룬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는 만회하지 못할것이다.

주변국들까지도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한다면 구태여 마음에 없는 판계개선타령을 늘어놓느라고 목이 쉬지 말고 《통명강화》에 힘을 넣으면서 생겨먹은대로 살아가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구태와 정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남관계를 대하여야 할 때이다.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 협력교류와 화해단합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적대와 대결의 기나긴 나날을 보낸 남조선의 현 당국이 뼈속깊이 절감하고있을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북남관계개선에 진정으로 발벗고나설것을 기대하고있다.

김연이

습근평주석 여러 나라 방문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19일부터 29일까지 아랍추장국련방, 세네갈, 르완다, 남아프리카, 모리셔스를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습근평주석은 해당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회담과 담화를 진행하였다.

회담과 담화들에서는 정치, 경제, 안전 및 법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비롯하여 쌍무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중국과 해당 나라들사이에 일련의 협조문건들이 조인되였다.

방문과정에 습근평주석은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에서 진행된 제10차 브릭스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생활안정에 힘을 넣고있는 중국

최근 중국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많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었다.

이달에 들어와 전국각지에서 내린 폭우로 장강과 가릉강, 대도하, 황하를 비롯한 여러 강하천들의 수위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무섭게 범람하는 강물은 인명피해와 함께 숱한 살림집과 농경지, 도로와 공공하부구조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큰물로 7월 18일현재 27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5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8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2만 3000칸의 살림방들이 무너지고 무려 175만 9000ha의 농경지에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총피해자수는 2053만명, 경제적손실액은 약 516억RMB.Y(웬)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습근평주석은 재해구제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들어선것만큼 해당 지역의 당위원회와 정부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철저히 확립하고 긴급구조작업을 적극 벌려 인명피해를 막는 한편 리재민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국가큰물 및 가물방지총지휘부, 자연자원부, 응급관리부를 비롯한 해당 부문들이 력량과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동원하며 지방의 긴급구조사업을 지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생명 및 재산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적극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습근평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당과 정부는 전국의 피해지역들에서 특우피해방지대책과 긴급구조대책을 위하는 한편 리재민들이 안착되여 생활할수 있도록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응급관리부는 지난 13일 사천성과 감숙성의 큰물피해지역 리재민들이 리용할 8000개의 천막과 8000개의 접이침대, 5만벌의 옷과 침구류 등을 조달하였다. 중국홍십자회는 사천성에서 특우로 큰물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4급응급제도를 가동시켰으며 재해지역의 수요에 따라 94만여RMB.Y에 달하는 구제물자를 제공하였다.

중국당과 정부가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리익보장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는것은 다른 계기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며칠전 길림성 장춘시에서는 생물약품사건이 발생하였다.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가 법과 규률을 위반하고 미친개병약품을 망탕 생산하여 판매했던것이다. 이 위법행위는 지금 사회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있다.

습근평주석은 해당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건관계자들을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하며 조사결과를 제때에 발표하여 대중의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중요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는 지시에서 약품안전을 담보하는것은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의무로서 인민대중의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중국의 와껜관리체계를 완비하며 안전한 계선을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사회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극강국무원총리도 조사그루빠가 와껜생산과 판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그 어떤 기업이나 사람들이 관계되든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가차없이 엄법에 처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법범죄행위들을 호되게 타격하고 불법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법에 처함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안전하고 안심할수 있는 믿음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습근평주석과 리극강국무원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원은 전문사업제도를 내오고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에 조사그루빠를 파견하여 사건조사와 책임추궁,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길림성은 성, 시급사건조사처리지도소조를 내오고 국무원조사그루빠의 사업에 협력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결부하여 위험성이 있는 약품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려 하고있다.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사회적안정을 전력을 다해 보장하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의지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림원

월간국제정세개관

평온이 깃들지 못하고있는 오늘의 세계

7월에 판세장벽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사이의 무역전쟁이 치렬해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마찰이 매우 심각하였다.

지난 6일부터 미국은 340억US$에 해당되는 중국산 수입품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이 집중투자하고있는 정보통신과 로보트, 항공우주 등 여러 분야의 첨단제품들이 목표로 되였다.

중국이 강하게 대응해나섰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 하나의 리익을 위해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하고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큰 무역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초력을 발생하는 시간인 베이징시간으로 6일 12시 1분부터 동등한 규모의 미국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언론들은 자국이 무역전쟁에서 싸워 승리할수 있는 자신심을 가지고있으며 또 그럴만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무역전쟁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것이라는데 대해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은 아직 관세부과를 보류하고있는 5000억US$어치의 중국산 제품이 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보복대응하면 관세부과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얼마전에는 2000억US$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관세부과계획을 발표하였다. 첨단기술제품을 겨냥하여 조치를 취하였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의 전략적자원인 희토류를 비롯하여 식료품과 화장품, 의복류, 동물사료 등 소비상품까지 관세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적인 관세부과조치로 하여 두 나라가 입게 될 경제적손실과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영향을 두고 불안을 금치 못하였다.

무역의 자유화라는 밑물을 타고 서로에게 침투해들어가던 많은 상품들이 높아진 관세장벽에 부딪쳐 판로를 잃게 되였다. 두 나라가 각자가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선것은 경제적리익을 둘러싼 모순과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유럽산 승용차들에 추가관세를 부과할수도 있다는데 대해 시사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비롯하여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밀접한 여러 나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급급하고있다.

이달에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태복고주의정책으로 인해 중동지역정세가 매우 험악하게 번져졌다.

이스라엘당국은 오는 10월에 꾸드스에서 자치선거를 진행하려 하는 등 명토화장책동을 집요하게 벌리였다. 이것이 팔레스티나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속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3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여 시위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수십발의 최루탄을 발사하였다. 그로 하여 수십명이 가스에 질식되였다. 또한 이스라엘군병사들은 실탄을 발포하여 팔레스티나인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부당한 구실을 내걸어 9채의 팔레스티나인살림집과 3동의 건물을 강제로 허물어버리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60여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한지에 나앉았다. 현지주민들이 항거해나서자 유태복고주의자들은 경찰을 동원하여 11명을 체포해갔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팔레스티나령토에 공습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유태인들의 국가》로 명명한 법을 채택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고 지역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갔다.

이스라엘의 모든 만행들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암적존재로서의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날강도적정체를 여실히 폭로해주었다.

이달에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테로사건들이 련발하여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뜌니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한달사이에 어러차례의 테로사건들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 13일 선거집회를 노린 자폭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여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날 한 테로분자가 18~20kg의 폭발물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터뜨려 105명을 살해하고 15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모든 현실은 오늘의 세계가 평화와 안정과는 너무나 먼거리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7월은 국제사회앞에 이렇게 묻고있다.

어째서 지구상에는 인류가 그토록 념원하고 지향하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못하고있는것인가? 무엇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침략과 전횡이 란무하며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것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존엄과 자주권, 리익을 침해하고 남을 얽매려는 지배주의가 소란하고 불안정한 오늘의 현실을 초래하였다. 지배주의가 반목과 질시를 조장하고 침략과 전쟁을 사촉하였으며 대립과 마찰을 격화시켰다.

지구상에 깊이 뿌리내린 불화의 씨는 지배주의이다. 그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평등과 호상존중에 기초한 국가관계, 정의롭고 공정한 국제관계를 수립하며 단합하고 협력해나갈 때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가 건설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희

재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노력

라오스정부가 언제봉괴사고로 인한 후과를 가시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에 아토페우주에서 언제봉괴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26일에도 계속 취해지는 속에 동력 및 광업성은 이번 봉괴사고를 조사하고 리재민들을 돕기 위한 위원회를 내왔다.

그리고 현재 가동중에 있거나 건설중에 있는 전국의 모든 수력발전소들에 기상기후에 주의를 돌리며 현재의 상황을 보고할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보건성은 의료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말라리아발병을 막기 위한 위생방역대책을 취하도록 하였다.

한편 로동 및 사회복리상은 방대한 량의 물이 낮은 곳에 위치한 마을들을 휩쓸었다고 하면서 현지에 나앉은 수천명의 리재민들에게 필수품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일본에서 높아가는 반아베기운

일본 도꾜에서 최근 아베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약 8500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정부가 공문서를 조작하고 국회에서 그릇된 법안을 강행표결하는 등 정치부패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문제시하면서 국민을 속이였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한 집회참가자는 로동법개악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가 로동자들을 말처럼 부려먹으면서도 보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ㄱ-181119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판매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